

### 우리사회의 버팀목

작금 우리나라가 심상치 않은 난국을 맞고 있음은 아무도 부인 못한다. 이 점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어쨌든 사태가 국부적인 어려움이 아니고 정치적 경제적 및 정신적, 다시 말해 다중병세가 뚜렷하다. 그런데다가 계속 정치사회의 깊은 환부가 알려지고 있지 않은가. 이른바 한 국병이 여간 중증이 아니라는 것을 알만하다.

리져야 한다. 정치력이 썩고 경제력도 병들었다. 이 나라를 버티고 있는 것은 그나마 사회력이다. 보통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날 그날을 단순하고 정직하게 살해 다중병세가 뚜렷하다. 그런데다가 계속 정치사회의 깊은 환부가 알려지고 있지 않은가. 이른바 한 국병이 여간 중증이 아니라는 것을 알만하다.

**정신이 멀하지 않으면**  
오래 자리를 비웠다가 이 땅에 돌아온 한 외국인 관찰자는 이렇게 그렸다. "지금 한국은 벼랑 끝이 문명정치의 커가는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갈피를 못잡는 사회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 사회는 아직 전전하다. 광범한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한창 왕성한 연배와 늙은이가 큰 무리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 기간은 달 없이 건설하다.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다. 밑바닥 삶을 살아가며 삶의 보람을 체득한 인간존이 숭선하여 모범을 보여준다. 장하다. 한국의 어머니는!

어떤 뜻에선 지금 국민이 심각한 한국병의 징후를 알게 된건 오히려 다행이라 여긴다. 만일 그런 줄도 모르고 지나다가 막말로 나라가 썩어 문드러질 지경이 됐다면 어쩔뻔 했는가. 상상만 해도 두렵다.

꼭고 병든 자들이 있다. 그건 소위 허리 다령이라 여긴다. 만일 그런 줄도 모르고 지나다가 막말로 나라가 썩어 문드러질 지경이 됐다면 어쩔뻔 했는가. 상상만 해도 두렵다.

누구의 입에서 먼저 나왔는지 모르나, 이따금씩 들리는 말이 있다. 위기가 기회라 된다고, 그건 생각할수록 묘미가 있다. 우리 형편이 이렇게 됐으니 차라리 이를 기회로 만들려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게 됐다.

이 점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다. 자고로 한 국인은 고난 속에서 살아왔다. 우리의 역사는 다름 아닌 안락의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한국인은 어떠한 역경도 두려움없이 견뎌왔다. 나라를 빼앗긴 절망 속에서도 다짐하지 않았던가. "나라는 형제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정신이 멀하지 않으면 나라를 부활할 때가 온다." (박은식)

오늘 이 나라의 상황은 역(逆)이었다. 나라의 형체는 강대해졌으나 정신이 썩어가고 있다. 우리의 정신이 대오각성해 새로 나지 않으면 형체도 정신도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 사회의 양식은 신생의 대의를 다짐하고 퍼지지 않으면 안된다.

변하지 않고선 살 수 없다. 이 어려운 고비를 먼저 정신부터 쇠신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연세대의 예방의학교실 김한중교수가 94년 한해 동안의 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고사가 압과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다음으로 많게 나타났다. 사고사 원인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전기감전 가스폭발 사고 등의 순이었다.

이 점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다. 자고로 한 국인은 고난 속에서 살아왔다. 우리의 역사는 다름 아닌 안락의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한국인은 어떠한 역경도 두려움없이 견뎌왔다. 나라를 빼앗긴 절망 속에서도 다짐하지 않았던가. "나라는 형제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정신이 멀하지 않으면 나라를 부활할 때가 온다." (박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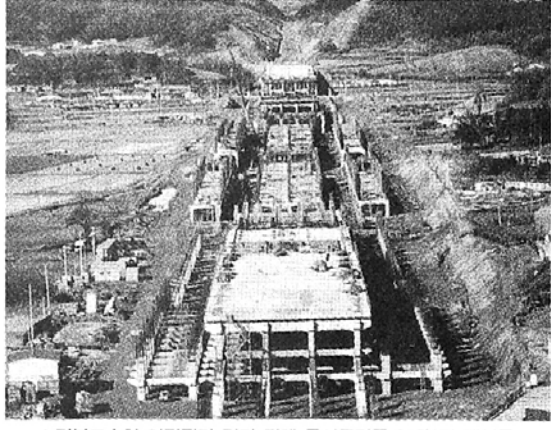
오늘 이 나라의 상황은 역(逆)이었다. 나라의 형체는 강대해졌으나 정신이 썩어가고 있다. 우리의 정신이 대오각성해 새로 나지 않으면 형체도 정신도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 사회의 양식은 신생의 대의를 다짐하고 퍼지지 않으면 안된다.

변하지 않고선 살 수 없다. 이 어려운 고비를 먼저 정신부터 쇠신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연세대의 예방의학교실 김한중교수가 94년 한해 동안의 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고사가 압과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다음으로 많게 나타났다. 사고사 원인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전기감전 가스폭발 사고 등의 순이었다.

변하지 않고선 살 수 없다. 이 어려운 고비를 먼저 정신부터 쇠신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연세대의 예방의학교실 김한중교수가 94년 한해 동안의 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고사가 압과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다음으로 많게 나타났다. 사고사 원인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전기감전 가스폭발 사고 등의 순이었다.



김용구 <언론인>



경부고속철 안전진단 결과 전체 공사구간중 21.5%가 재시공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

# “적당주의 안된다”

## 고속철 부실

건설공단 안전진단 교량등 39곳 재시공 불가피  
2002년 개통 차질...10조원 이상 예산 추가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고속철도 건설공사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미국 WJE사에

의뢰해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천안 1개 구간, 천안~대전 시험선 전구간(61km)에 대한 다리·터널·기초바닥 등에 대한 안전성 진단 결과, 전체점

검 대상 1천1백12곳 가운데 재시공이 불가피한 곳이 39곳, 보수가 필요한 곳 177곳, 추가조사가 필요한 곳은 148곳으로 밝혀졌다. 전체의 24.9%인 297곳만이 시공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삼풍참사 벌써 잊었나”

동국대 정각원장 범상남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한데 또 부실공사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심경을 말했다. “적당주의 부실시공은 곧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고속철은 국가 백년대계를 다지는 일이므로工期와 예산에 구애됨 없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

입시킬 수 있는 완벽한 공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사는 재물을 얻고자 지혜를 행하며 기술로써 작업(作業)에 의지하며, 작업을 완수하는 것으로 마침을 삼는다. 도적은 주지 않는 것을 빼앗고자 하고 숨겨 감추기를 행하며 칼로써 아픔을 의지하며 발각되지 않는 것으로 마침을 삼는다.” <중아함 하유경>

고속철도건설공단은 이같은 결과를 16일 발표하고 “이번 안전진점 결과를 토대로 시공사업체별로 보완시공 계획을 세워 감리단 책임 아래 보수공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측과 시공사간의 책임소재 규명을 두고 최악의 경우 법정공방까지 갈 것으로 예상돼 또다른 국력낭비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 시공업체는 “초기에는 모든 설계기준이 테레베 차량 기준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공단이 제시한 국제철도연맹 기준을 준용했다”고 말해 테레베차량과는 구조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 공단측에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

2010년 돼야 개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사비도 10조7천억원(93년 정부 발표에서 최소 20조원으로 늘어났음)으로 보인다.

부실시공에 따라 경부고속철도는 2002년 개통은 사실상 어렵게 됐으며, 빨라야 2005년, 늦으면

정성운 기자

### 지계

### 금주

### 파계

#### 두 야당 북동포돕기 나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민간운동에 동참하는 형식으로 북동포돕기 운동에 나섰다. 국민회의는 당일 1인당 3천원 모금운동을 전개키로 했으며, 자민련도 당일 모금을 벌여 적십자사에 성금을 전달키로 했다.

#### 벽지학교 책걸상 보내기

●...중앙재과는 10일 울릉도내 5개 초등 학교에 3백69조의 책걸상을 전달했다. 중앙재과는 94년부터 ‘초코파’ 관에 20주년을 맞아 주고객인 어린이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방안으로 책걸상 바꿔주기 운동을 시작, 지금까지 전국 5백27개 도서벽지학교에 1만 9천4백조의 책걸상을 교제해주었다.

#### 정치인들의 거짓말 난무

●...검찰이 10일 한보리포트에 오른 33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을 소환하겠다고 밝히자 소환대상으로 알려진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바란다”고 했던 한 의원은 조사 이후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정치자금이었다”고 공백한 변명을 하기도.

#### 유명 햄버거 대장균 ‘우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5일 맥도날드 버거킹 하디스 웬디스 롯데리아 등 5개 업체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를 업체당 2개씩 수거해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g당 1백60~4만4천마리 검출됐다고 밝혔다. 하디스의 2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대장균군은 야채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많이 발생, 배탈 등 소화장애를 일으킨다.

#### 은행들 부도방지협 구성

●...은행 등 금융권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한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한 부도방지협약을 마련,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채권을 동결하고 경쟁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 서울시 중소기업 1875억 지원

●...서울시는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1천8백75억원의 자금을 긴급 대출한다.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도 공장설립에 따른 임차료와 건축비의 50%이내에서 최고 7억원까지 지원된다. 서울시는 17일 “올해 중소기업 융자지원은 운전자금 6백75억원 시설자금 1천1백80억원으로 나눠 28일 부터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중·고생 금지약물 남용

●...우리나라 중·고교생 1천명중 12명이 신체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특히 고교 3학년생의 경우 미국 학생들보다 술·각성제 수면제를 더 많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부 조사에서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7~11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6대 광역시의 26개 중·고교생 2만9천8백38명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 13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 사고 사망자 하루 73명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수가 하루평균 73명(1년 2만6천6백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의 예방의학교실 김한중교수가 94년 한해 동안의 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고사가 압과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다음으로 많게 나타났다. 사고사 원인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전기감전 가스폭발 사고 등의 순이었다.

#### 趙시장 2등석 해외 순방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베를린 카이로 파리 등 유럽과 아프리카 3개 도시 순방에 나서는 조순 서울시장의 기존관행을 깨고 왕복항공기 좌석을 2등석인 비즈니스클래스를 이용키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 교수 논문표절 자성 촉구

●...서울대 고려대 교수 2명이 교수사회와 교수회를 비판하며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교수들은 14일자 대학신문과 고대신문 기고를 통해 논문표절 성희롱의혹 교수정치활동 등은 정·재·관계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고 대학이 썩은 부분을 스스로 바로잡아 자정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동해 용존산소량 감소 심각

●...동해의 용존산소량이 지난 60여년간 계속 감소했으며, 이런 추세라면 2백~3백년내 동해에서 물고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위성천대학교

## 제3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97 어린이날 기념 · 부처님 오신날 기념

### 부처님 우리들의 부처님

어린이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부처님을 그립니다.

5월 5일 어린이 날,  
이 날은 우리들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대접하는 날입니다. 지난 해 많은 분들의 후원에 힘입어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치루어졌던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월간 불광과 목아불교박물관에서는 이 날을 어린이들 가슴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부처님을 모셔주는 날로 정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되는 부처님 그림 그리기에 어린이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및 어린이 기네스 대회가 어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팀보게임:** 하늘을 향해 허리를 굽힌 다음 장애물 밀로 통과하는 경기

**덩크슛 대회:** 농구공을 쥘기면서 덤블링을 향해 달려와 점프를 하면서 농구공을 골대에 넣으면 성공

**팀 쌓기:** 부모님 또는 선생님, 친구와 함께 2인 1조가 되어 성냥개비를 사용하여 제한시간 안에 ‘우물장자’ 모형으로 팀을 가장높이 쌓기

**우유마시기:** 팔대를 이용하여 컵에 담겨진 우유를 가장 빨리 마시는 경기

통과자는 예쁜 스티커와 단계별 선물을 드립니다.

- 일시: 1997년 5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경기도 여주 목아박물관
- 대상: 전국의 어린이(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 시상: 종합 대상 1명, 대상 1명, 금상 3명, 은상 4명, 동상 6명, 입상 200명, 특별상(단체상), 각 부문 상장 및 상품
- 참가비: 3,000원 (10명 이상 단체 참가시 1인당 2,000원)
- 준비물: 도시락, 크레파스나 그림물감, 화판 (모자하움)
- 참가자전원 목아불교박물관 무료입장, 기념 티셔츠, 동화책, 음주수 등 기념품 증정(선착순 1,000명)

참가 신청 및 문의전화: 월간「불광」 02) 420-3200  
목아박물관 0337) 85-9952~4

주관: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주최: 월간「불광」, 목아불교박물관 / 후원: 문화체육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협회, 한국불교 미술인협회,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불교TV, 불교방송, 불광사 불광법회, 재단법인 보덕학회, 협찬: 서울우유, 대한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